

일어신문 『濟州新報』 관련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小考*

고영철**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에서 첫 번째로 발행된 일어신문인 <제주신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주장에 대한 의문점들을 밝혀보 고자 하였다. 첫째, 제주신보가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의 주도 혹은 지시 로 창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 다. 제주신보의 발행목적 및 취지, 이 신문의 제작자, 배포대상 등을 유 기적으로 종합해 본 결과, 해상교통의 두절로 전시신문들의 보급이 중단 되자, 이들 신문을 대신해 제주도민들에게 전시상황을 선전하며 전쟁참 여를 독려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제주에 특파된 일본신문의 기 자들이 중심이 되어 일본군의 협조 하에 임시로 발간하였던 선무공작용 신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제주신보를 진중신문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셋째, 팩트(fact)는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大 河實錄 濟州百年』(1984), 『濟州新聞五十年史』(1995), 『濟州言論史』 (1997) 등에 기록된 보도요원 선발주체 및 요원 수, 보도요원 시험장

* 이 논문은 2018년 11월 21일 <2018 제14회 지역언론연구> 세미나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한 것임.

이 논문은 필자의 저서 『제주언론 돌아보기 I』 에도 수록되었음을 밝힘.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교수

소, 창간일과 종간일, 발행주기, 배부대상, 발행부수 등이 서로 다른 것은 역사적인 증거가 불확실하거나 증거없이 서술했기 때문이다. 넷째, 제주신보가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과 달리, 당시의 신문용지 보급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주제어 : 제주신보, 발행주체, 발행목적, 진중신문, 발행주기

I. 머리말

일어신문인 『濟州新報』는 제주지역에서 탄생한 첫 번째 신문이다.¹⁾ 1945년 7월 초순경 제주에 주둔한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의 주도로 창간된 이 신문은 8월 15일 해방 후 9월 28일 미군이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제주에 상륙하면서 폐간될 때까지, 약 2개월 동안 군의 사기진작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발간되었다. 제 58군은 일본 본토 방어를 위한 결7호작전(決7號作戰)을 위해 제주도에 주둔한 약 7만5천여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최고의 사령부였다.

당시 제주도의 상황을 보면, 1945년 5월에 들어서면서 대한해협의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기의 공습으로 제주와 육지부를 연결하는 정기화객선의 교통이 두절되기 전까지는, 각종 물자를 비롯해 일본 본토에서 발행되는 매일신문(毎日新聞)·조일신문(朝日新聞), 서울에서 발행되는 경성신문(京城日報)·매일신보(毎日新報), 지방지인 광주일보·목포신보 등이 제주에 배포되고 있었다.(제주신문사, 1995: 257).

1) 『大河實錄 濟州百年』(1984), 『제주신문50년사』(1995), 『제주언론사』(1997) 등의 저술에 실린 제주신보에 관한 내용이 거의 비슷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를 일일이 따로 달지 않았다.

그러나 해상교통수단의 두절로 전시(戰時)의 신문들이 제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누가 먼저 신문 창간을 제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제(日帝)는 전승을 선동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높이고 제주도민을 전쟁수행에 동원하기 위해 제주신보를 창간하였던 것이다.

진중신문(陣中新聞)으로 알려진 제주신보는 총독부 또는 조선군관구(朝鮮軍管區)의 지령을 받고 1945년 6월말경 제주에 파견된 경성일보의 기모도(木本) 주필을 편집책임자로 하여, 당시 전황(戰況) 취재를 위해 제주에 특파되어 있던 6~7명의 일본신문사 기자들과 제주 지역에서 긴급 모집한 수습기자들이 중심이 되어 간행되기 시작했다.

이 신문이 발간된 기간은 불과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해상운송수단의 두절로 육지에서 발간된 신문들이 제주로 들어오지 못하던 무신문기(無新聞期) 시절에 제주지역에서 발간되었던 최초의 신문이었기 때문에 비록 일제가 발행했던 신문이지만, 그것이 정보전달기구로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여러모로 연구할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신문에 대한 연구는 이문교의 신문사(新聞史)적 연구를 제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그 이유는 이 신문이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을 알아볼 수 있는 1차 자료인 신문이 호외판을 제외하고 한 호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일제가 발간한 신문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중에 연구대상에서 거의 배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결과, 하나의 사실(fact)을 놓고, 이 신문의 존재를 기록한 『大河實錄 濟州百年』(강용삼·이경수 편저, 1984), 『濟州新聞50年史』(제주신문사, 1995), 『제주언론사』(이문교, 1997) 등에 실려 있는 내용들 간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공식적 자료들이 없어 이를 바로 잡지 못하고 있다(<표 1> 참조). 특히 몇

몇의 주장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표 1> 3개의 저술에 기록된 제주신보 관련 사항 비교

구 분	대하실록제주백년	제주신문50년사	제주언론사
발행취지	대주민 선무 선동용	군의 사기 진작	군의 사기 진작
발행주체	제38군사령부 ²⁾	제58군사령부	제58군사령부
제작진	특파원	특파원	특파원
창간일	명시 안 됨	7월	7월 초순경
종간일	8월 16일 특파원들 제주에서 철수/없음	미군상륙 이후, 호외판=종간호	패전 후에도 신문발간, 호외판=종간호
발행주기	명시 안 됨	명시 안 됨	격일간
배부대상	명시 안 됨	군부대, 관공서 등 도내 일원	군부대, 관청, 주민 등
발행부수	명시 안 됨	약 3천부	2천5백~3천부
신문판형 ³⁾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	타블로이드

따라서 여기서는 자료의 한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의 발행주체가 과연 누구인지, ‘진중신문’이라고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발간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심

- 2) ‘제38군 사령부’와 관련 당시 제주에 주둔했던 일본군 부대의 명칭을 인터넷 검색과 관련 논문자료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제38군 사령부라는 부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38군사령부라는 명칭은 제58군을 잘못 쓴 표기라고 판단된다. <대하실록 제주백년> 저자가운데 한 분인 강용삼씨를 2018년 11월 초순경 만나는 인터뷰한 결과, 제58군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 3) 이 신문의 존재에 대해 최초로 기록한 이경수는 <나의 재직시절>(제주신보, 1979년 8월 21일자 3면)에서 “일본군 당국은 손바닥만 한 濟州新報를 발행하였다”라고 기록하였다. 이 내용으로 보아 제주신보의 크기가 타블로이드판이 아니고 이것보다 작은 반절지 크기의 신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논의해 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 신문의 발행주체가 누구이고, 누구를 주요 독자층으로 삼았느냐에 따라 이

신문이 제주지역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위해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와 타 기록들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일단 일제말기 제주도의 사회상황, 창간취지 및 과정, 신문제작자, 주요 배부처(배포 대상) 등을 먼저 서술한 후 아래와 같은 질문에 대해 해답을 구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여기서 서술한 내용은 <제주신보>에 관한 기존의 기록들이 없었더라면, 나올 수 없었을 것임을 밝혀둔다.

여기서 논의할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간주체는 누구인가? 총독부인가, 제 58 군 사령부인가?

둘째, 진중신문이라고 부르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당시 군부대 보도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넷째, 주요 보도내용(주제)은 무엇인가?

다섯째, 창간일과 종간일은 언제인가?

여섯째,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II. 제주도의 사회상황: ‘결7호 작전’과 제58군사령부를 중심으로

<제주신보>의 창간목적 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 신문이 나오게 된 당시의 사회 환경과 이 신문의 창간주체로 추정되는 제58군사령부가 어떠한 부대였고, 결7호 작전은 어떠한 작전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조선군개요사(朝鮮軍 概要史)(宮田節子 편, 1989) 등에 따르면, 제

주도가 중요한 군사거점으로 급부상하게 된 것은 태평양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일본이 미국과의 일본본토결전(本土決戰) 구상에 따른 것이다. 1945년 1월 필리핀에 이어 3월에 이오지마(硫黃島)마저 미군의 수중에 떨어지고, 도쿄 등 대도시에 무차별 공습이 시작되면서, 오키나와 본토와 규슈 등 일본 서부지역에 미군의 상륙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곳을 상실하면서 영미 연합군의 일본 본토 침공은 시간문제가 된 것이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의 최고전쟁지도자회의인大本영은 3월 20일 미군 등 연합군의 공격으로부터 일본본토를 사수하기 위한 ‘국토결전작전 준비요강’을 비밀리 각 방면군에 하달하였다. 이 결전작전을 암호명으로 ‘결호작전(決號作戰)’이라고 불렀다. 그에 따라 각 지역의 방어를 위한 결전작전계획이 세워진다. 결1호 작전은 홋카이도 지시마 방면(제11방면군), 결2호 작전은 동북부 도호쿠-고시네츠 방면(제12방면군), 결3호 작전은 간토 방면(제36군 및 제6항공군), 결4호 작전은 도카이 호쿠리쿠 방면(제13방면군), 결5호 작전은 간사이·시코쿠·주코쿠 방면(제15방면군), 결6호 작전은 규슈 방면(제16방면군), 결7호 작전은 조선 제주도 방면(제17방면군⁴⁾ 소속 제58군)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작전지역 중 결1호에서 결6호까지는 모두 일본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7호작전은 유일하게 제주도를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가 일본 본토가 아님에도 결호작전에 포함되었던 것은, 지리적으로 일본의 남단 규슈(九州)지방과 중국 남부를 연결하는 직선상에 위치하면서 필리핀과 한반도 사이에 놓여 있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 일본 3국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

4) 1945년 1월 22일 일본육군은 내지방위군 예하의 동부군, 중부군, 서부군을 폐지하고, 방면군과 군관구로 재편했다. 이때 한반도에 주둔했던 조선군도 해체되고, 작전 부대인 제17방면군과 병참 등을 지원하는 조선군관구로 분리 재편되었다.

본 대본영은 제주도를 미군에게 점령당하면, 대한해협이 봉쇄당해서 대륙으로부터의 물자 공급 및 관동군 수송이 차단되고, 일본 본토를 침공할 전진기지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제주도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미군에게 상륙을 허가해서는 안 되는, 본토 이외에 유일하게 결7호 작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때 대본영이 조선의 방어를 책임진 제17방면군에게 지시한 결7호 작전 준비요강을 보면(강순원, 2006:10),⁵⁾ 제주도에 제58군 사령부를 설치하고 주력병력으로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 제32대대, 제1특설군무대를 배치하도록 하고, 조선 본토에 제121사단을 대기시키고, 포병과 전차부대를 중국과 만주에서 제58군으로 이동, 배치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제7호작전이 실제로 진행될 때에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는 관동군과 북부 중국 방면군에서 2~3개 사단을 증강하도록 하였다. 제주도의 방어 작전 계획은 결7호작전이라 명명되었다.⁶⁾

- 5) 대본영이 제17방면군에게 지시한 <국토 결전작전 준비요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작전명령: 결7호 작전 2) 병력의 기초배치/제주도: 제58군, 제96사단, 제111사단, 독립혼성 제108여단, 독립속사포제32대대, 제1특설 군무대 3) 기타 직할부대로서 아래와 같이 예정함. 만주에서 독립구포 제23대대, 제4통신 중대, 몽강 蒙疆에서 독립전차 제12연대 제14중대, 북부 중국(北支)에서 전신 제11연대, 중부 중국(中支)에서 분진포 제1대대, 조선에서 독립야포병 제6연대 4) 결3호(제13방면군) 결4호(제14방면군) 결5호(제15방면군)작전이 개시될 때는 제17방면군에서 1개 사단을 규슈로 파견함. 5) 제7호작전이 개시될 때에는 관동군과 북부 중국방면군에서 2~3개 사단 증강함.6) 작전 준비는 8월 말 개성(概成, 10월 말 완성으로 한다.
- 6) 이 지시에 의해 제17방면군은 '결7호 작전'의 구체적인 준비요강을 마련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제17방면군 사령부는 적(미군)은 북규슈(九州)방면으로 상륙하거나 또는 조선해협 돌파를 목표로 할 경우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도를 공략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위해 2~5개 사단규모의 미군이 1945년 8월 이후 제주도에 상륙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서 당초부터 유력한 병력을 투입하여 미군의 상륙지점을 확보하고, 미군이 상륙작전을 전개할 경우 독립(獨力)으로 전

이에 따라 1945년 4월 15일 제주도에 섬의 모든 군을 통솔하는 제58군사령부가 급히 편성되었고, 결7호 작전 수행을 위해 4월부터 일본 본토의 부대를 비롯하여 한반도, 만주, 중국, 몽고 등에 주둔해 있던 군부대들이 제주로 대거 이동해 오기 시작하였다.

일본군의 대량 유입시기를 보면, 가장 먼저 부족한 일본군의 전력을 보충하기 위해 급히 신설된 제96사단(총병력 9,000명, 예하부대 6개)이 1945년 4월 초순경 제주도 북부지역으로 이동해 왔고, 그 다음으로 긴키(近畿)담당 중부군에서 전용된 독립혼성 제108여단(6,000여명, 예하부대 3개)이 4월 중순경 제주에 상륙, 중부와 동남부 지역에 배치되었다. 그 뒤를 이어 만주 관동군에서 활동하던 제111사단(1만2,000여명, 예하부대 4개)이 그 해 5월 상순에 제주도 서부해안에 배치되었다. 관동군 예하부대였던 제121사단(예하부대 자료 불명, 1만3,000여명) 또한 6월 중순경 제주에 상륙, 제주도 서부지역을 맡게 되었다. 이 두 사단은 만주에서 전투경험을 쌓은 현역 병사들이 주축이 되었으며, 화력도 강해 정예부대로 평가받고 있었다(조성윤, 2008: 140—143).

제58군 사령부는 1945년 4월 20일 제주도에 도착하여, 3일 후인 23일에 제주공립농업학교에 본부를 설치하였다. 제58군의 직할 부대로는 사령부를 비롯해 전신 제11연대, 공병대, 병참병원, 비행장경비대 등 14개 부대를 두었고, 제58군의 직접 지휘를 받는 제12포병사령부도 그 예하에 4개 포병부대를 두었다(츠카사키 마사유키, 2008: 73).

제58군의 임무는 미군이 규슈(九州) 북부 방면으로 상륙하거나 또는 조선해협 돌파를 위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 제주도에 대한 공략이 있을 경우, 제주도의 모든 군을 통솔하여 독자적으로 제주도를

력을 기울여 이를 격멸도록 방침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작전준비의 완료시기는 제주도의 경우 7월 말로 예정했다.

사수하는 것이었다. 초기 군 사령관은 나가쓰 사히쥬(永津佐比重) 중장이었고, 종전 당시에는 도야마 노보루(遠山登) 중장으로 바뀌었다.

결호작전이 수립되던 1945년 2월까지만 해도 제주도 수비병력은 제주비행장중대와 연안수비대 등을 합쳐 약 1천명에 불과했지만(이문교, 1997:98), 2개월 후인 4월에는 2만명, 5월에 3만6천명, 6월에 5만여명, 7월에는 6만5천명으로 증강되었고, 종전 직전까지 4개월 사이에 주둔 병력은 무려 7만5천여명으로 대폭 증강되었다.

시차를 두고 제주로 들어오는 대규모의 군부대 상륙 모습은 당시 제주 주민들에게는 호기심의 대상이면서 전장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1945년 4월 20일 제58군 사령관이 제주도에 도착한 이후부터 결 7호작전 준비가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45년 4월 23일부터 제17방면군과 제58군 사령부 그리고 총독부는 가장 먼저 전장에 대비 제주도 주민의 조선 본토 피난 이주 대책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일본군은 제주도에 전투가 진행될 경우, 전장으로부터 주민을 피난시키는 편이, 전투에 끌어들여 같이 싸우는 것보다 이점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즈카사키 마사유키, 2008:94-95).

하나는 당시 인구가 23만이던 제주에 전체 인구의 32.6%에 해당하는 7만명이 넘는 대병력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우선 보급이 한정된 섬에서 가장 먼저 군의 식량 확보문제가 대두되었다. 또 하나는, 작전수행 상의 장애이다. 일본군은 조선인을 믿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오키나와전에서 일본군이 지역 주민을 직, 간접 살해한 예로 가늠할 수 있다. (만일 미군이 제주에 상륙한다면) 제주도민이 미군과 밀통하기도 하고, 투항하여 군사비밀이 새나가는 점, 그리고 일본군에 다수 포함된 조선인 병사가 자신의 부모나 아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동포가 죽어가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보며, 전의(戰意)를 상실,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최소의 필요 주민만 남기고, 전장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는 결코 인도적 입장에서 나온 계획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군의 작전수행 상의 필요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58군 사령부와 조선총독부는 1945년 5월~6월부터 제주도가 전장화될 경우를 대비해 주민 23만명 가운데 병력자원으로 투입할 수 없는 노년층과 어린이, 부녀자 등 5만명 가량을 육지로 이주시키기로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소개(疏開) 계획이 언제부터 실천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조선에서의 전쟁준비>라는 문서에는 “약 5만의 노인, 유아, 부녀자를 본토에 피난시켜야 하고, 6월 이후 귀환선을 이용하여 수송을 개시하고, 그 외는 군과 작전행동을 취하게 하여 전도일치(全島一致) 적을 격파하는 것으로 결정... 그런데 제1회 피난 주민 약 500명의 조난에 따라 이 수송은 중지하기에 이르렀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어느 배가 조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2개의 설이 있다. 하나는 <제주도 4·3사건> 제1권이 취하고 있는 5월 7일의 황화환(晙和丸)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주도, 풍영환(豊榮丸) 조난사건>이 취하고 있는 7월 3일의 풍영환설이다.

기록에 따르면, 황화환(晙和丸·383톤)은 1945년 5월 7일 승객 500명을 태우고 목포로 가던 중, 황간도 부근에서 미군기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여, 257명이 사망했다(김봉옥, 2013: 197). 반면에 황화환(498톤) 승선자 중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제주~목포간 화객선 晙和丸(선장: 요시다 유사부로) 승선인원은 앞의 기록보다 훨씬 많은 700여명이었고, 이 가운데 생존자는 100여명뿐이어서 600여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서일본기선주식회사(西日本汽船株式會社) 소속인 이 화객선은 498톤급 철선으로 정원 450명이었으나, 이날 승선자는 정원보다 250여명이 더 많았다(이문교, 1997: 100). 이문교는

예상보다 승선자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 군에서 선발한 이주자 외에 피난작전 소문을 들은 비교적 여유 있는 삶을 누리던 사람들이 승선했기 때문이라 추측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제주도민이 희생당하는 첫 번째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사고로 인해 본토로 주민들을 분산시키려던 소개(疏開) 계획은 중단되었다(박찬식, 2005: 368). 하지만 시기를 고려하면 이 배는 제1회 피난선이 될 수가 없다.

두 번째 소개(疏開)선박으로 알려진 풍영환(豊榮丸·784톤)은 군용 물자를 일상적으로 제주도로 수송하던 육군 장용선이다. 이 배는 7월 3일 목포항에 입항하기 직전에 미군 잠수함의 기뢰에 맞아 침몰하였다. 이로 인해 승객, 선원, 군인, 군속 등 450명이 조난되어 280명 가까이 사망했다고 한다. 조선인과 일본인 희생자의 비율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조선인 희생자도 다수 있었다(츠카사키 마사유키, 2008: 96).

이들 기록에 따르면, 어느 배가 첫 번째 이주민을 태우고 육지로 가다가 미군기의 공습을 받아 침몰한 배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에 대비해서 제주도민을 한국 본토로 분산시키기 위한 최초의 피난선이 미군기의 공격으로 침몰, 민간인 수백 명이 수장당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1945년 6월경부터 제주도 부근 해역의 제공권을 장악한 미연합군에 의해 제주의 주요 군사시설들과 함선에 폭격이 가해졌다. 이러한 공습은 일본군과 일본함선뿐만 아니라, 제주주민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7월 6일에는 한림항 매립지의 일본군 군기고(軍機庫)가 미군기의 공습으로 그 속에 쌓여있던 폭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인근의 민간인들이 큰 희생을 치렀다. 이 공습으로 <민가 400호가 파손당하고, 30여명이 사망했으며, 200여명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기록이 있다. 제주 3도 산지향의 알콜 공장, 군수공장 등도 연일 미군기의 기관총

공격을 받았다고 한다(제주도, 1982: 432). 이보다 앞선 4월 14일에는 기타규슈시 문사(門司)에서 상해로 향하는 선단을 호위하던 해군 해방함 능미호(能美號·940톤)와 제31호(745톤)가 한림항 바깥 비양도 근처에 입시 정박 중, 미군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 침몰하고, 그 다음날 15일에는 해군 정용선인 수산환(壽山丸·3943톤)이 제주도 남서 앞바다에서 잠수함의 어뢰공격을 받아 침몰하였다(츠카사키 마사유키, 2008: 90).

5월에 접어들자, 미군기와 잠수함의 공격으로 조선해협을 통과하는 선박과 함께 제주도로 인원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의 피해도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이를테면 5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2개월 동안에 목포와 진도 앞바다, 여수-제주 사이, 제주와 추자도 앞바다 근해에서 크고 작은 21척의 여객선과 수송선이 계속되는 미군기의 공중폭격과 잠수함의 어뢰공격 등으로 침몰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

이처럼 계속되는 미공군기의 공격으로 제주-목포, 제주-부산, 제주-대관간의 정기여객선들은 거의 파손되거나 침몰되면서 제주도와 육지부의 해상교통은 완전히 두절되었다.⁸⁾ 다만 일본병력과 무기를 수송하는 군용선과 소개(疏開)나가는 도민을 태운 화물선의 야간왕래가 교각이었다.

미군기의 공격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면서, 일본군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도 늘어나고 전쟁에 대한 공포와 불안에 떠는 주민들도 증가하기 시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수단이 두절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서울에서 발행하는

7) 21척 침몰선에 대한 침몰일, 선명, 톤수, 침몰장소, 선원의 사망자 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츠카사키 마사유키의 논문 91~92쪽을 참고하기 바람.

8) 全羅南道濟州島廳이 1939년 발간한 濟州道勢要覽는 당시 제주도와 일본 오사카, 목포, 부산 등 사이에 정기 항로가 개설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제주와 대관선은 월3회, 제주와 부산선은 월24회, 제주와 목포선은 월15회를 운항하였다.

경성일보(1906년 창간 총독부 기관지, 일본어), 매일신보(1910년 창간, 총독부기관지, 한글+한문), 광주에서 발간하던 전남신보(1899년 6월 16일 일본인 야마모토(山本吉岩)가 창간한 <목포신보>가 1941년 2월 10일 『전남신보』로 제호가 바뀐, 국한문 혼용신문) 그리고 일본에서 발행하는 <毎日新聞>(마이니치신문, 1872년 2월 21일 창간), <朝日新聞>(아사히신문, 1879년 1월 25일 창간) 등이 주로 배포되고 있었다.

미군기의 공습 등으로 제주와 목포, 부산, 일본의 오사카 등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이 단절되어 일본과 서울 등에서 발간되는 전시(戰時)신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전황과 국내외의 동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거의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군부대와 관공서 같은 곳에서 무선과 통신을 통해 수시로 전황을 접하고 있었지만, 제주지역 주민들은 밖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한편, 결7호 작전 계획에 의해 미군의 침공으로부터 제주도를 사수한다는 방침을 정한 일본군 7만5천여명은 제58군 사령부의 지휘 아래 1945년 5월부터 섬 전체를 요새화하기 시작하였다. 일본해군은 이보다 앞서 1945년 2월부터 제주·고산·서귀포·성산포·모슬포·함덕 서우봉 등 제주해안 절벽 곳곳에 동굴을 파서 특공 기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박찬식, 2005: 367). 이들 基地는 미군 함정이 다가올 경우, 작은 보트에 폭탄을 싣고 미연합군의 함선에 돌진하여 배를 폭파시키기 위한 또 다른 자살 특공대 카이텐(回天) 특공보트를 숨기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제주도 중산간지대도 일본군의 요새로 변해 갔다. 어승생악·관음사·녹산장 부근 등지에 거대한 기지가 구축되었다. 일본군의 복곽(複郭)진지로 최후 저항의 본부로 삼았던 어승생악(御乘生岳·해발 1169m)을 비롯해 많은 오름에 미로와 같은 수많은 인공 굴이 만들

어졌다(제주의 소리, 「김종민의 ‘다시 쓰는 4.3」, 2017년 03월 21일자)

즉, 제주도의 오름과 해안가 100여개소에 각종 진지를 포함한 요새들이 집단적으로 구축됐다. 이 당시 대정읍 모슬포 앞뜨르에 해군 비행장(1935년), 제주시 정뜨르에 육군 서비행장(1944년 5월 완공), 조천읍 진뜨르에 육군동비행장(1943년부터 공사 시작, 1945년 5-6월경 공사중지), 조천읍 교래리에 비밀비행장(1945년 6월 말경 완공)도 건설된다.

이와 같은 군사시설 공사에 많은 도민들이 동원돼 혹사를 당했다. 약 7만 대군이 전도를 요새화 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주민들이 겪었던 고생은 조선 전체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었다(박찬식, 2005: 363).

일제가 일반적으로 <국민직업 능력신고령>에 의해 강제 동원할 수 있는 노무자의 나이는 만 16~50세 사이였다. 그러나 수많은 군사시설 공사를 해야 할 제주에서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 마을별로 인원이 할당되면 예순 살, 일흔 살의 노인들까지 동원되는 일도 있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나이 어린 초등학생이 동원되는가 하면, 부친 일까지 대신하느라 농사일도 돌볼 틈 없이 두세 번씩 동원되는 사례도 많았다.

1945년 5월 이후 일제는 제주도에 남게 된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에 협력하도록 하기 위해 면장이나 직장의 장을 대장으로 하여 국민의용대를 조직하게 하였고, 이들은 소년대, 부녀대, 청년대, 장년대로 나뉘어 유격전, 공습대피훈련 등 군사 훈련에 동원됐다. 결과론적 이야기지만, 이것은 제주도민들을 오키나와 같은 옥새작전에 끌어들이 죽음의 길로 보내려는 광신도들의 계획이었다.

이처럼 일제는 징병·징용·공출 그리고 강제노역을 관리하기 위해 면서기와 구장(區長, 현재의 마을이장) 등을 동원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였던 면서기와 구장들, 그리고 일본군에 대한 주민들의 불평불만과 반일감정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당시 일

본군 사령부에서도 제주도 주민들이 일본군에 대한 반일감정이 어느 정도인지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제17방면군이 1945년 7월 30일경에 작성한 <조선을 중심으로 한 7월 말경의 정세판단>과 <작전준비 촉진에 관한 방면군의 희망사항>을 보면, 일본군은 제주도 주민을 전력으로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츠카사키 마사유키, 2008: 98).

방면군으로서 이 필승방책의 확립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내심 의심스러움이 없지 않을 뿐 아니라, ‘후의 근심’마저 느껴진다. 일부 훈련된 장정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대를 걸 수 있지만 일반 대중은 여전히 사대사상의 구태를 벗기기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거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다.

만일 적기의 폭격에 더하여 조선의 일각에 적군의 진행을 본 적 없지만, 민심 일반의 동요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태업 상대적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적군이 상륙하면 이에 호의를 갖는 자가 비교적 많으므로 주민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제17방면군은 미군 상륙작전시 제주도 주민들을 방어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 전투훈련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부를 제외한 제주도 주민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미군이 제주도에 상륙한다면 제주도 주민들의 동요는 더욱 심각해지고, 나아가서는 일본군에 협조하지 않거나 미군에게 우호적인 입장을 가지는 주민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지역 상황을 고려할 때 총독부(또는 조선군관구)와 제주주둔 일본군 제58군 사령부는 여러 지역에서 이동해 온 다양한 일본군의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전쟁의 피해 등을 우려하며 동요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일감정을 완화시키고, 이들을 전쟁에 적극

동참하도록 선무선동(宣撫煽動)하기 위한 심리전 무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전란와중(戰亂渦中)에서 정부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군사령부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각종 선무활동을 통해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점령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III. 제주신보의 창간과정과 취지

제주신보의 창간과정(또는 동기)과 그 목적 등을 처음으로 기록한 책은 『대하실록 제주백년』이다. 이 책에 실린 ‘제주신보 탄생’이라는 제하의 글은 이 신문의 창간과정과 취지를 다음과 기술하였다(1984: 985—994).

유항도 전투에서 8만 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전사하고 막강을 자랑하던 남방군이 패전을 거듭한 끝에 제기의 돌과구를 찾아 허둥대던 1945년 6월 하순경 <경성일보>의 주필로 있는 기모도가 용산에 있는 조선군사령부(朝鮮軍管區)로 호출되었다.⁹⁾ <...중략>

삼엄한 헌병의 감시 속에서 그와 마주앉은 사람은 조선군관구 참모장 가마사끼 소장과 조선총독부보안과장 이소사끼였다. 사령관실에서 이소사끼 총독부 보안과장은 경성일보의 기모도(木本)주필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였다.

“주필선생, 수고 좀 해주셔야겠소. 전황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소.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 않은 장래에 본토결전이 불가피할 것이요.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제주도에 가쓰

9) 조선군사령부는 1945년 2월 미군의 일본본토 진격에 대비하여 육군 전체를 개편할 때, 작전 부대인 제17방면군과 병참 등을 지원하는 조선군관구사령부로 개편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조선군사령부는 한반도에서의 치안을 유지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조선군관구 사령부를 의미한다.

기(香月)중장이 이끄는 제 38 군단¹⁰⁾이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이요. 주필선생도 아는바와 같이 전쟁이란 군인만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소. 주민들의 동원태세가 앞서야 하고 그들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오. 제주도에서의 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주민들을 선무, 동원할 신문을 만들어야 하겠소.”
(1984: 985)

이 기록에 따르면, 기모도 주필에게 주어진 임무는 지역주민들을 전쟁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선무선동하기 위한 신문을 발간하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大本營(大本營) 휘하에 소위 공보기관을 두어 패전 직전에 있는 전황을 조작하여 국민을 현혹하기에 급급한 한편 검열제도를 강화하여 전쟁목적에 어긋나는 보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밀명을 받은 기모도 주필은 3일 후에 제주에 도착한다. 그는 전운(戰雲)이 물씬 감도는 제주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칠성로 이시마쓰(石松)여관(구나사로 병원의 입구)에 여장을 풀 다음 곧바로 제38군(제58군의 오기) 가쓰끼 사령관¹¹⁾을 찾아갔다. 중령은 기모도 주필에게 “이미 연락을 받고, 우선 인쇄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칠성로에 있는 요스모도(四元) 인쇄소(지금의 월광사 자리)를 교섭 중입니다. 기자들은 아무래도 현지 청년들을 채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고 전했다.

가쓰끼 중령의 말에 따라 요스모도 인쇄소에 진을 친 기모도 주필은 인쇄소 사장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기자모집광고를 써 붙이도록

10) <...제주도에 가쓰끼(香月)중장이 이끄는 제38군단...>이라는 내용은 이소사끼 안보과장이 기모도 주필에게 한 말을 제3자가 김필자에게 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기라고 생각된다. 당시 제주도에는 가쓰끼(香月) 중장과 제38군단이 존재하지 않았다.

11) 이문교는 여기서 말하는 가쓰끼(香月) 사령관(중장)을 제58군 사령부에서 파견한 신문제작 책임자인 가쓰끼(香月) 중령이라고 기술하고 있지만(109쪽), 이 또한 그 근거가 명확치 않다.

하였다. 그날 오후 제주읍 요소요소에는 다음과 같은 벽보가 나붙었다. 「군사령부 보도부에서 보도요원 모집, 면접과 시험은 6월 30일 군사령부에서 실시한다.」 이 벽보를 붙인 날은 6월 27일 혹은 28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벽보를 붙인 이틀 후인 6월 30일에 작문시험과 면접시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시험장소인 군사령부(지금의 제주동초등학교)에 제주의 준재들이 물밀 듯이 모여들었다고 할 정도로 수습기자 모집에 많은 젊은이들이 응시한 것은 중군기자들에게 군복무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었고, 지원병 차출에서도 제외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수습기자 선발시험 결과는 약 1주일 후에 합격자에게 개별 통지되었다. 합격자는 김용수(金溶洙·20세), 박태전(朴太全·21세) 두 사람이었다. 일본군 사령부에서 뽑은 것이지만, 제주도에서 초유의 지방기자가 탄생한 것이다. 얼마 후 이기형(李琪亨·21세)은 매일신보(한글과 한문 병용)의 수습기자로 고광태(高光泰·20세), 조수인(趙壽仁·나이 불확실), 문종욱(文種郁·20세)은 경성일보(일본어 신문) 수습기자로 각각 채용되었다.¹²⁾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모두 총독부에서 발행하던 기관지들이다. 한편, 이문교(1997: 109)는 앞의 기록과 달리 일본군 사령부에서 뽑은 수습기자가 2명이 아니라, 김용수(20세), 박태전(21세), 이기형(21세), 고광태(20세), 문종욱(20세) 등 5명이라 기록하고 있다.

공식적 기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기록이 정확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이 넉넉잡아 약 2개월 동안 일본군의 기관지(또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제주신보’를 발간하는데 동참했던

12) 이문교에 의하면, 일본군 사령부에서 뽑는 수습기자 모집에 30여명이 응시하였다. 이들은 1945년 6월말 일본 신문 특파원들의 숙소인 石松旅館(제주시 칠성로 소재)에서 작문과 면접시험을 치렀고 이 가운데 金溶洙(20세), 朴太全(21세), 李琪亨(21세), 高光泰(20세), 文種郁(20세) 등 5명이 수습기자로 선발되었다.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신문이름은 경성일보의 기모도 주필이 신문 제작을 감독할 장교들에게 제주도의 지명을 따 제주신보(濟州新報)로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한다(강용삼·이경수, 1984: 987).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문창간이 매우 시급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IV. 신문 제작자들

이 신문은 대(對)주민 선무선동용(宣撫煽動用) 신문을 창간하라는 조선군관구의 명령을 받고 1945년 6월 말경 제주에 내려온 경성일보의 기모도(木本) 주필을 비롯하여 당시 전황 취재를 위해 제주에 특파되어 있던 <동맹통신>(同盟通信)의 스즈끼(鈴木) 기자, <매일신보>의 도가시(富樫) 기자, <경성일보>의 미시마(三島) 사회부장, <전남일보>의 이소이(磯井) 주필 및 하라(原) 편집부장 등 6~7명이 중심이 되어 간행되기 시작했다(강용삼·이경수, 1984: 987).

그리고 1945년 7월 초순경에 선발된 5~6명의 수습기자들은 각 신문사의 특파원에게 배치되어 신문발간업무를 보조했다. 그 업무를 보면, 김용수는 군보도부에 배속되어 군부대 동태를 취재하고, 고광태는 공공기관 출입, 이기형은 문화면 편집보조 및 독자투고 담당, 박태순은 편집보조, 문종옥은 사진을 촬영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신문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던 수습기자들은 낮에는 신문제작을 돕고 밤에는 제주에 파견된 大阪毎日, 大阪朝日, 讀賣新聞, 京城日報, 全南新報 특파원들에게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신문교육을 받았다(이문교, 1997: 110).

이 신문의 제작 감독자 겸 책임자는 제58군 사령부의 가스끼 중

령이었고(이문교, 1997: 109) 신문제작 실무적 책임자는 기모도 주필이었다. 당시 각 신문의 특과원들은 좌관(佐官)대우를 받았고, 수습기자들에게 위관(尉官) 대우의 신분이 보장되었다(강용삼·이경수, 1984: 987).

신문인쇄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요스모도(四元) 인쇄소(제주읍 일도리 1377, 현 제주시 칠성로) 시설을 이용했다. 이 인쇄소는 칠성동에 있었고 일본어 식자를 갖추고 있었다. 四元 인쇄소의 부족한 시설은 전남일보의 시설 일부를 긴급 도입하여 보강되었으며 제주주둔 제58군단의 기관지로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수습기자들은 제주신보 제작에서는 보조원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들이 약 2개월 동안 습득한 신문제작 기술과 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해방과 동시에 제주에서 지방 신문을 탄생시키는 구심체 역할을 했다.

수습기자 출신 가운데 김용수는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로 참여하여 정경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제주신문 주필, 제남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이기형은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 의회보(議會報) 편집국장, 제남신문 편집위원, 제주문화방송 편성부장, 보도부장, 제주신문 논설위원, 한라일보 논설위원, 이사로 활동했다. 고광태는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 제주신문 정경부장, 제남신문 정경부장을 거치며 언론 활동을 했다. 그러나 문종욱은 1년여 동안 사진 기자로 활동하다 교육계로 전직했고, 박태전은 해방 후 언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이문교, 1997: 110).

V.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

1. 창간주체는 누구이고, 창간목적은 무엇인가?

제주신보의 출현을 기록한 『대하실록 제주백년』(1984), 『제주신문 50년사』(1995), 『제주언론사』(1997) 등에 의하면, 이 신문은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의 주도로 1945년 7월 또는 7월 초순경 창간되었고, 8·15 해방 후인 1945년 9월 14일 아놀드 미군정장관(美軍政長官)이 발표한 <정치단체, 시민 등의 경찰력 행사를 금한다>라는 제하의 성명을 실은 호외판을 9월 25일 발간하고 중단되었다. 호외판을 종간호로 보는 이유는 9월 28일 일본군이 미군에게 항복문서를 제출함¹³⁾과 동시에 신문발행에 대한 권리도 미군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제주신문사, 1995: 276; 제주언론사, 1997: 102).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자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제주신보의 발행주체를 제58군 사령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나, 신문제호 밑에 있는 판권란에 발행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신문이 현재까지 한 장도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현존하는 호외판의 판권란에도 아무런 표식이 없기 때문에 누가 이 신문을 발행했는지를 확실히 알 수가 없다.

이 신문의 발간주체가 제58군 사령부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근거 없는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 반면에 이 주장을 부정하고, 이 신문을 총독부에서 임시로 발간했던 기관지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기록도 현재까지 없는 상태이다¹⁴⁾. 만약에 이 신문이 총독부의 기관

13) 제주도에 미군이 들어 온 것은 1945년 9월 28일이다. 일본군의 항복문서를 받기 위해, 육군대령 그린(Green)과 해군중령 월든(Walden) 등이 요원38명과 함께 비행기편으로 이곳에 도착하였다. 도착 후 미군은 제58군 사령부에서 육군사령관 원산등(遠山登)과 해군사령관 빈전승일(濱田昇一)과 제주도 주재 사무관 도사 천전전평(千田專平)으로부터 항복문서를 받았다(김봉욱, 2013).

14) 제주신보와 관련된 여러 의문점에 대해 해답을 얻기 위해 필자가

지였다고 하면, 제주신보의 발행 책임자는 경성일보의 기모도 주필 등과 같은 일본인이 되고, 인쇄인은 인쇄소 사장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근거로는 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 등을 들 수 있다. 매일신보의 1928년 6월 7일자 신문 판권란을 보면 편집 겸 발행인 김순흠(金善欽) 인쇄인 증환(曾煥)으로 명기되어 있었는데, 1945년 8월 14일자 판권란을 보면 인쇄인이 天山益進에서 淸州診熙로 그리고 편집겸 발행인은 金本東進으로 교체되었다. 이들은 총독부에서 임명한 자들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은 제주신보의 진정한 발간(혹은 창간)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이다. <대하실록 제주백년>에 따르면 이 신문의 존재와 창간목적은 지역주민들을 전쟁수행에 적극 협조하도록 선무선동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근거로는 당시 신문발행허가권과 신문검열을 총괄하고 있던 조선총독부 보안과장이 경성일보의 기모도(木本) 주필에게 지시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주필선생도 아는바와 같이 전쟁이란 군인만으로 수행하기는 어렵소. 주민들의 동원태세가 앞서야 하고 그들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오. 제주도에서의 결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주민들을 선무, 동원할 신문을 만들어야 하겠소.”(1984: 985).

그리고 이 책보다 11년 늦게 출간된 <제주신문50년사>(1995: 273)에서는 “일본군은 전승(戰勝)을 선동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높이

2018년 10월 16일 제주 주재 <일본영사관>에 공문을 보낼 결과, 현재로서 그런 신문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고 제주도민을 전쟁수행에 동원하기 위해서 제주신보를 창간하였다”라고 서술하였다. 이어 1997년에 발간된 <제주언론사>에 따르면 이 신문은 “일본군의 승전보를 알림으로써 군의 사기를 높여 독전(督戰)태세를 갖추는 한편 전쟁 피해 등으로 동요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을 선무하여 전쟁지원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다”는 의도로 창간되었고, 또한 “이 신문은 군의 사기 진작이라는 특수목적 아래 창간된 진중신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1997: 97—101).

이들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제주신보의 창간 목적은 후자의 주장처럼 군인들의 사기진작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종 군사 기지 건설에 강제동원, 식량공출 및 수탈, 해상교통수단 두절로 인한 물자부족, 전쟁피해 우려 등으로 일본군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어 전쟁에 적극 협조·동참하도록 선무선동(宣撫煽動)하기 위한 심리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창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과 일본에서 발행되던 모든 신문들이 일제의 침략을 미화선전(美化宣傳)하고 국민들을 전쟁에 동참시키기 위한 심리전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 보도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신문은 군의 시기진작을 위한 것이고, 저 신문은 국민들을 전쟁에 동참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어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진중신문과 일반 신문의 제작진과 배포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 진중신문(陣中新聞)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자들은 모두 제주신보를 진중신문이라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 신문을 제58군사령부에서 발간했다고 가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군부대에서 발행한 신문은 무조건 진중신문이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제 58군 사령부에서 발간했다고 단언할 만한 공식적인 기록이 없고, 어떤 현상이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사상(事象)을 먼저 종합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진중신문이 어떤 신문인지 사전적 정의를 통해 살펴보자. 진중(陣中)은 일반적으로 군대 진영안 또는 전쟁터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일반적으로 진중신문은 전쟁지역에 주둔한 군부대에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체 발간하여 부대원 등에게 배포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런 개념을 토대로 먼저 현실 세계에서 보여지는 진중신문이 어떤 신문을 말하고, 어떻게 발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 신문자료실에 들어가 1950년까지 발간된 총 69개 국내 신문을 대상으로 '진중신문'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결과 1901~1944년까지 발행된 신문에서 총 4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4개 모두가 매일신보(每日新報)에 보도된 기사였다. 4개 기사 가운데 3개는 진중신문의 성격과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설명하는 기사였고, 나머지 하나는 신문(담당)과장(新聞課長) 경질에 관한 기사였다.

이들 기사 가운데 진중신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3개 기사를 발행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것은 <매일신보> 1937년 9월 24일자 1면 하단에 실린 '陣中新聞發行 世界最初の 일 全線將兵에 大好評'이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天津 二十三日發 同盟) 제일선(第一線)에 있는 병대(兵隊)들이 제일 그리워하는 것은 <뉴스>다. 오지(奧地)로 적을 추격하여 가는 용감한 장병은 소정(所定)한 부서이외의 일은 돌볼 여가도 없고, 타진지(他陣地)의 상황이며, 내지(內地 / 일본 본국을 말함)에 발생한 사건, 미곡의 작황 잡○수확(蠶○收穫)의 양불양등(良不良等) 알고심히서 못견된다.

신문기자가 진지에 나가면 기사를 취재하러왔는지 뺏기러왔는지 모를 만큼, 질문공격에 조우(遭遇)한다. 기차가 도착하면 <벤도>를 쓴 현신문을 살펴서 읽는 상태이나, 천율사령부(天津司令部)에서는 금회 지나사변(支那事變)진중신문을 1주 1회 발행하기로 되어 22일부로 그 제1호 약 3만부를 발행하여 각 전선 각 부대에 발송하였다. 보통신문지 대 2월(大二頁) 각전선마다 전반(全般)의 전국(戰局)을 종합적으로 게재하고 차외(此外) <뉴-스>여학생의 위문문까지 집록(集錄)하였다. 진중에서 차종(此種)의 신문을 이리케 대규모로 출판배포해야 장병의 <뉴-스>욕을 채워준 것은 일본은 물론 세계에서 최초의 일로서 신문부의 긴장도 굉장(宏壯)하다 그보다도 전선에서는 비상한 호평을 전하고 있다(每日申報, 1937.9.24).

이 기사에 따르면, 지나사변(支那事變) 기간 중에¹⁵⁾ 중국 텐진 사령부(天津司令部)에서 1937년 9월 22일 발행한 신문이 최초의 진중신문이다. 보통신문지 대판 크기의 2페이지짜리 이 신문은 주 1회 약 3만부를 발행하여 각 전선 각 부대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보도내용은 각 전선의 전반적인 전시상황, 본국에서 발생한 사건과 여학생의 위문편지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 것은 1938년 1월 24일자 매일신보 2면에 실린 <북지장병(北支將兵)으로부터 위문에 대한 사상(謝狀)전하는 고향소식을 드러서는 반지(半紙)에다 진중신문> 제하의 3단 기사이다. 이 기사는 진중신문의 내용과 제작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혹한과 싸호며 산서(山西)의 치안유지에 당하고 있는 OO부대장병

15) 1937년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중국과 일본간의 전쟁. 일본에서는 지나사변(支那事變)이라 한다. 37년 7월 7일 북경 교외 노구교에서 일본군이 군사행동을 도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정부는 선전포고도 없이 총공격을 개시, 북경·천진에 이어 국민정부의 수도 남경(南京)을 점령하고 30만이 넘는 무고한 시민을 살육했으며(남경대학살사건), 무한(武漢)·광둥(廣東)·산서(山西)에 이르는 주요도시 대부분을 점령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한국근현대사사전>을 참고하기 바람.

은 조선불교단(朝鮮佛敎團)과 군사후원(軍事後援)○맹위군단의 방문을 밧고 매우 즐거운 가운데서 정월을 마지하야 진중(陣中)의 용사로부터는 런맹과 기타조선내외 지우(知友)들에게로 속속 연하장을 보내어서 진중정월(陣中正月)의 모양을 전하고 잇는 삼본(森本)부대 본부부(本部付)의 한 용사로부터 이십이일 경성에 잇는 지우(知友)에게로 온 군사우편(軍事郵便)은 최근의 진중소식을 아래와가티 전하야 왔다.

지금은 이제부터의 전투를 위하야 마음것 쉬이고(山西)의 一 각에도 봄이 차저와서 무엇이라고 말할수업는 빗나는 희망에 불타고 있다. 조선불교단위문사의 음악위문에 버금하야 군사후원(軍事後援)○맹의 위문단 전전소장(前田少將) 서강본부지방과장(西岡本府地方課長)등이 지나간 기일에 진중을 차저와서 <나니와부시>와 만재(漫才)등 오래간만에 눈(眼)에 보양을 어더서 매우 유쾌하얏다. 더구나 총독부의 영화(映畵)는 모다 반가운 것뿐이였다. 구랍(舊臘)이래로 밤이 되면 DK의 <뉴-스>가 가늘게 들려옴으로 내가 청취역(聽取役)으로 되야서 매날 반지(半紙) 一매의 등사판인쇄로 진중신문(陣中新聞)을 내는데 ○룡산의 과병식과 총독부의 국장회의 청양리의 <스케-트> 대회 등의 <뉴-스>는 서로 압흘 다투어 보는 대인기이다(每日申報, 1938년 1월 24일)

이 기사에 의하면, 중국의 산서지방에 주둔한 군부대에서는 라디오에서 청취한 내용을 중심으로 매일 반지(半紙) 크기의 진중신문을 발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것은 1944년 11월 4일자 2면에 실린 <가정문화: 전선과 총후¹⁶⁾를 잇는 끈 진중신문이 되기까지> 제하의 2단 제목의 기사이다. 이 기사는 앞의 기사들보다 좀 더 자세하게 진중신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도하고 있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6) 총후(銃後)라는 단어는 군인들이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후방에 남은 사람들도 일본의 전쟁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총후보국(銃後報國)이 있다. 그 뜻은 <총 뒤에서 나라에 보답한다>이다.

나날이 거듭해가는 빛나는 제일선의 전과(戰果)는 신문이나 라디오로 알고 총후의 결심을 새롭게 하지만 이와 함께 국내의 힘찬 총후활동의 상황도 또한 <신문>을 거쳐서 전선장병의 사기(士氣)를 돋아주는 것이다. 전선의 <신문>은 었던 것인가. 우리들이 매일 잇고 잇는 국내발행의 <신문> 그것이 아니라 독특한 <신문>이니 그것은 즉 진중신문이다. 북쪽에 잇는 〇〇 〇도(島) 수비대에서는 동부보도반(東部報道班)이 동맹통신을 직접 수신(受信)하여 매일 등사판으로 박아서 날마다의 전향과 국내의 시사문제를 부대에 보도한다. 이와 함께 부대장병 출신지의 신문사에서 귀중받은 각 신문이라든지 사진특보를 열람시혀서 장병의 정신력, 전투력을 북돋아 주고 잇다.

보도반은 군속(신문통신사원)을 중심으로 하여 보도계 장교 하사관 병졸 등으로 편성되어 잇어서 모-루쓰부호로 수신한 가다카나의 무선전신을 곳 번역해서 신문원고를 만드는데 이 동맹통신은 실상은 전국 각신문사나 갖가운 바다에 비행하고 잇는 함선에도 똑가치 방송하는 것임으로 라디오와 가치 두 번씩 들을 수 업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전의 현상에 따라서 수신이 중단되거나 혼신(混信)이 되거나하여 여러 가지 장애가 만흔 것이다.

그리고 전문지식이 업는 병정이 중요기사를 흘너버리는 수가 잇슴으로 전문가인 보도반원이 이것을 보충하여 정리편집해서 박도록 한다. 물론 수신과 번역을 병정이 하고 등사판원지에 쓰는 것 박는 것까지 전부 병정이 한다.

인쇄된 <진중신문>은 매일회보시각(會報時刻)이면 각대로부터 모혀드는 명령수령자에게 논하준다. 각대에서는 이것을 혹은 돌너가며 보기도 하고 혹은 랑독도 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전원에게 알너준다. 이리하여 용사들은 남방과 대륙의 전우들이 용진분투하는 소식을 알고 주먹을 부르취며 전신의 피는 끄러오르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갈수록 긴장해가는 국내의 모든 사정을 알게되며 총후봉공에 감격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진중신문은 중요한 보도만을 압축한 소위 <야전판>(野戰版)임으로 속보의 목적은 도달한다드라도 자세한 것은 역시 국내신문을 보지 안으면 알 수 업는 것이다.

그럼으로 우편선(郵便船)이 닷기만하면 용사들은 먼저 집에서나 친지들

이 보내준 서신을 정신업시읽고난 다음에는 보도반에게 달녀와서 <OO신문 안왔습니까> <OO일보를 좀보여주십시오> <OO신보왔스면 보여주십시오>하야 진중신문이나 서신로 안소식을 더 자세히 알게되는 것이다.

<여보게 이놈의 B29사진이 낫네> <야-베가 잘익는 걸> <비도에 五百기래습-이런 것은 우리들이 맞혀서 집어치엇스면조캣다> 생각나는대로 주고받는 중에도 전우의 두개골을 압헤노코 백인미국소녀의사진은 속깊히 터져나오는 적개심을 한층 더 뚫구어 주는 것이다.

그러치만 소기내각의 힘찬 자태. 여자정신대의 활약 병기공장의 증산 국민저축의 증강 결전수송의 강화 징병의 출발 해군특별지원병 이러한 기사와 사진은 전선용사를 분기식힌다. 그런데 야미(필자 주석: 암거래=やみとりひき)이야기가튼 기사를 본다면 총후의리면의 부패한구석이 가시지안엇슴에 그들은 비분한 눈물을 흘닐 것이라는 것을 독자는 알아야 한다(사진=진중신문화보를 통하여 멀리 고토의 총우생활을 엿보는 장병들 육군성검열체(陸軍省檢閱濟)).

이 기사에 따르면, 진중신문은 부대 내의 보도반이 동맹통신을 직접 수신한 내용을 번역하고 압축하여 신문기사 형식으로 만든 후에 매일 등사판으로 인쇄하여 부대원에게 배포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문을 말한다.

보도반은 군속을 중심으로 보도계 장교 하사관 병졸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모스(Morse)부호로 수신한 동맹통신의 기사를 번역해서 신문원고를 만들고 정리 편집하였다. 인쇄된 <진중신문>을 매일 배포시각에 모여든 각 부대 수령자에게 배포해주면 각 부대에서는 이것을 돌려가며 보거나 낭독을 하는 등 적당한 방법으로 전 부대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신문의 발행 목적은 병사들에게 각 전선의 전우들이 용전분투하는 소식을 알려, 주먹을 불끈 쥐며 전신의 피가 끓어오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기사를 종합해보면, 진중신문이란 일반적으로 군부

대가 자체적으로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군인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군대나 부대 안에서 발간하는 신문을 일컫는다. 이 정의에 따르면, 제주신보는 진중신문이 될 수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신보를 발간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니라, 진황 취재를 위해 제주에 파견되었던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그리고 동맹통신사의 특파원들이었다는 점이다.

둘째, 만약 제주신보가 진중신문이었다면, 구태여 제주주민들을 대상으로(군부대의 각종 비밀이 새어나갈 수도 있는데) 5~6명의 수습 기자를 급히 선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의 기사로 미루어 볼 때, 이 신문의 발간을 위해 보조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인요원들이 제58군 사령부 보도부에도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당시 제주도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제주신보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 신문은 일본군부대 뿐만이 아니라 제주도내 전관공서와 각종 단체, 상인 등에게도 당연히 배부되었을 것이라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제주신보는 총독부와 일본군의 요청으로 전쟁을 돕기 위해 신문발행허가권을 갖고 있던 총독부에서 임시로 발간했던 기관지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3. 당시 군부대 보도부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보도요원(또는 수습기자)을 누가 선발했는가?

보도요원 또는 수습기자와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표 2> 참고), 수습기자의 선발주체, 시험장소, 수습기자 수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大河實錄 濟州百年』과 『제주언론사』가 당시 수습기자로 일했던 사람들과 인터뷰를 근거로 작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신보 수습기자를 선발한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수습기자 선발장소와 인원수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주신문 50년사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이것은 수습기자 선발과 관련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생각한다.

<표 2> 수습기자 선발주체 등

구분	보도요원 선발주체 및 기자 수	시험장소	비고
대하실록 제주백년	군부대에서 채용한 사람은 2명, 매일신보 1명, 경성일보 3명 채용	군사령부(현재 제 주동초등학교)	채용시기 6월말
제주신문50 년사	공개모집 주체 명시안함, 김용수 박태전 등과,	명시안됨	채용시기 명시안됨
제주언론사	수습기자 선발주체를 명시안함, (군보도 요원 모집)공개채용을 통 해 5명을 선발했다고 기술	석송여관(일본신문 특파원들의 숙소)	채용시기 6월말

출처: 앞의 제시한 3권의 저술 내용을 중심으로 필자가 구성하였음.

<대하실록 제주백년>에 의하면, 요스모도(四元)인쇄소 사장에게 지체없이 기자모집광고를 써 붙이도록 한 사람은 일본군 관계자가 아니라, 총독부의 기관지인 경성일보의 기모도 주필이다. 기모도 주필의 지시에 의해 그날 오후 제주읍 곳곳에 다음과 같은 벽보가 나 붙었다. 「군사령부 보도부에서 보도요원 모집, 면접과 시험은 6월 30일, 군사령부에서 실시한다.」

이문교(1997: 110)에 따르면, <군보도부 요원 모집> 광고를 보고 몰려든 사람들이 시험을 본 장소는 군사령부가 아닌 일본 특파원들의 숙소였다. 기록들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지만, 수습기자를 모집한 주체는 기모도 주필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고, 제58군 사령부 내에 보도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은 다음과 같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첫째, 진중신문의 발간을 도울 수습기자들을 뽑는데, 왜 이 업무를 담당할 군부대의 보도부 대신, 기모도 주필이 직접 나서서 수습기자들을 뽑았는가?

하는 점이다. 둘째, 이 신문이 진중신문이었다면, 보도부의 요원들을 이용하지 않고 왜 제주지역의 젊은이들을 수습기자로 뽑아서 신문을 발간하는데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 먼저 당시 군부대의 보도부가 어떤 일을 하던 곳인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화 자료방에 들어간 후, 신문 검색창에 <군보도부>라는 단어(키워드)를 입력한 결과 약 42개의 기사가 검색되었다. 그 가운데 1945년도 1월부터 8월 15일 이전까지 보도된 모든 기사의 제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실제 각 기사의 내용을 보면, 오늘날처럼 군 보도부가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보내면 언론사가 이를 거의 그대로 보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검색창에 ‘군보도부’라는 단어를 입력해 나온 기사들

구분	제 목	날짜	관련 주제어
1	神鷲兩親을 激勵 石塚少尉家を 訪問 - 司令官代理로 長屋報道部長	1945.06.23	오키나와 [沖繩]
2	軍官民이 生死를 같이 本土決戰에는 男女總進軍 必勝의 國民義勇隊되라 長屋軍報道部長 談	1945.06.18	
3	本土決戰 後藤中佐放送	1945.06.14	
4	神前に 丹誠의 祈念-昨日, 護國神社에서 海軍 紀念日祭	1945.05.28	세도 [勢道]
5	映畫 [愛誓]製作에 對하여-大本營海軍報道部 參謀	1945.05.27	
6	時局懇談會盛況	1945.05.26	楊州郡
7	必勝譜-“히틀러”에게 바침	1945.05.14	Hitler, Adolf
8	陸海軍報道部를-大本營報道部に 合一	1945.05.13	
9	決戰報道宣傳強化-大本營報道部長 松村秀逸少將	1945.05.13	
10	長屋報道部長도	1945.05.09	
11	感激한 不屈의 精神-內鮮一體로 싸우는 帝都를 배우자-長屋軍管區報道部長歸任談	1945.05.05	
12	遺影앞에 冥福祈願 - 光子總督夫人, 鹽谷神鷲遺族弔問 - 長屋報道部長도 軍管區司令官代理로	1945.04.18	고노 쓰카사
13	第四十回 陸軍紀念日을 맞이하여 - 長屋報道部長放送 - 信念과 鬪志로 본받으라 勝利의 敎訓 - 四十年前國民士氣	1945.03.12	
14	第四十回 陸軍紀念日을 맞이하여 - 長屋報道部長放送 - 信念과 鬪志로 본받으라 勝利의 敎訓 - 必勝에 困苦를 克服	1945.03.12	
15	全鮮映畫人 總蹶起大會	1945.03.12	고노 쓰카사
16	陸海軍報道部를-大本營報道部に 合一	1945.05.13	
17	全鮮映畫人 總蹶起大會	1945.03.12	고노 쓰카사
18	宮澤無電班長榮譽 遣支軍報道部長이 表彰	1945.03.09	서울 (특별시)
19	對備없으면不意의禍 알잡지말라 少數機 찾아질수록 防衛를 鐵壁으로	1945.01.26	南滿洲
20	入營壯丁家族 座談會를開催	1945.01.12	

구분	제 목	날짜	관련 주제어
21	補給戰에 血路를 나오라○있는事業家/ 飛行機를 朝鮮에서 보내자! - 工場設置에理想的 軍에서全幅的協力 明朗敢闘『紙芝居』競演	1945.01.12	고도 [高度]
22	兵役과內鮮一體	1945.01.08	

출처: <표3>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검색창에 ‘보도부’라는 단어를 입력해서 나온 기사 중에 <每日新報>(1945년 1월 8일자~1945년 6월 23일자)에 보도된 기사만을 뽑아서 필자가 별도로 정리한 것임. 이 제목의 기사들은 군 보도부에서 발표한 내용과 보도 책임자의 기자회견내용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이들 기사 가운데 몇 개를 뽑아서 그 기사 내용을 제시해보면 아래와 같다.

△ 1945.3.12. 第四十回 陸軍 紀念日을 맞이하여-長屋報道部長放送-信念과 鬪志로 “본받으라” 勝利의 敎訓-必勝에 困苦를 克服

(리드기사) 전국이 시시각각으로 더욱 처참가렬하여가는 이때 십일위의 기훈 육군기념일을 마치야 일억국민은 온갖힘을 바쳐 적미국을 기어히 쳐부수고야마를 결의를 더욱 굳게 하였는데 낭야야(長屋)조선군관구사령부보도부장은 이날 오후여섯시 삼십분부터 二십分동안 경성중앙방송국 <마이크>를 통하여 <제四십회육국기념일을 마치야야>라는 제목 미테 열렬한 방송을 하여 一천六백만민중의 총무장총궐기를 요청하였다 <이하 생략...>

△ 信念은 勝敗를 決定(중간제목에 딸린 기사)

봉천전(奉天戰)의 결과가 가르켜 주는 바는 전쟁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봉천에서황군은 대승을 하였지만 당시 적은 철령 이북에 대병력을 갖고 있었고 또 <시베리아> 철도로 대군을 속속 수송하는 외에 <우라지오스토크>에도 상당한 병력과 함대가 있어서 우리 만주군은 여전히 적의 포위 중에 있었다 그리고 대륙과

내지를 연락하는 일본해는 적의 협위를 받아 보급이 끈 힘 위기에 있고 발틱함대는 각각으로 우리 본토에 접근하고 있어 그야말로 우리나라 위급 존망의 때였다. 마치 대동아전쟁에 있어 황국이 당면한 전국이 이와 방불한 바가 있다. 당시 적은 더 싸우려 들면 싸울수있었음에 불구하고 봉천 전과 일본해전의 패퇴만으로 간단히 손을 든 이유는 그들에게 확고한 전쟁 목적이 없고 국내에 평화를 원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한 탓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럴 듯이 손해를 입으며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안 하면 아니 되는 가고 국민은 생각하였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한다 <아메리카>가 四十년 전의 <로서 아>의 비애를 맛볼 때가 올 것을 나는 보증한다. 지난번 어느 참모는 도-교 공습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도민의 태도는 참으로 훌륭하다 말하였다. 반도의 제군도 도-교 도민에게 지면 안된다. 일로 전쟁 당시와 가치 이를 악물고 군관민 한 덩어리가 되어 전력을 증강하여 단연코 적을 격멸하자.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하로 바빠 이겨서 성령에 봉답하자.

△ 1945. 5. 26. 時局懇談會 盛況

양주군에서는 지난 二十三日 오후 두시부터 동군회의실에서 조선군관구 보도부장 낭야야(장옥長屋) 소장을 마지하야 관내 각읍면장 학교장과 일반 지도층 三백여명을 집합하여 시국간담회를 개최하고 먼저 마쓰바라 군수의 인사가 있는 다음 보도부장으로부터 시국에 대한 담화가 있자 각각질문에 의하여 보도부장답변으로 격의 업는 간담을 하고 등 오시반 폐회하였다.

△ 1945. 6. 14. 本土決戰 後藤 中佐放送.

<오끼나와>전 다음에 온 것은 — 本土決戰 — 우리는 본토에 적을 마저 엿터케 싸울 것인가 조선군관구보도부 죠(고)도 1중좌는 <본토결전 국민의 전선가입>이라는 제목으로 十二일 오후7시 二十분부터 다음과가튼 요재의 방송을 하여 <우리 육군은 상처업져안흔정에만을 일천만군 동원할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는 확실하다 국민은 일본국민의 단결의 힘을 발휘하라> 강조하였다.

이들 기사를 보면, 군 보도부의 역할은 신문과 방송 등을 통해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강조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전쟁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전쟁에 적극 동참하도록 선전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군 군부대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이와 같은 보도기사를 통해 유추해 보면, 제주주둔 일본군 제58군 사령부 보도부가 도민들의 협조와 동참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제주신보 등에 제공하고, 동맹통신에서 수신한 뉴스 가운데 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각 부대에 설치된 유선 스피커를 통해 방송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4. 주요 보도내용(주제)은 무엇이었는가?

신문사(新聞史)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는 남아 있는 신문이다. 제주신보의 경우, 중간호로 추정되고 있는 호외판과 스크랩 기사 9건¹⁷⁾(일본의 패전 이후 보도된 일반기사 5건, 독자의 시 4편)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신문이 한 장도 없다. 그 결과 이 신문의 편집 체제와 주요 보도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단지 9개의 스크랩 기사와 호외판을 통하여 편집내용을 부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문교(1997, 103—107)에 따르면, 이 신문은 타블로이드판 2면 5단(1행 12자)으로 편집되었으며 활자는 일본어 5호 활자를 사용하였다. 편집내용은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전황 보도와 전 국민의

17) 현재 이문교씨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주신보의 스크랩 기사(총 9호의 독자투고 시와 일반기사 9건)는 1945년 7~8월경 제주신보의 수습기자였던 활동했던 이기형(73, 한라일보 이사)씨로부터 수집했다고 함, 그런데 필자가 직접 확인해보려고 했지만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응전결의 등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일반기사와 외신 이외에 ‘백록가단(白鹿歌壇)’, ‘한라배단(漢拏俳壇)’ 이란 고정난을 두어서 독자들의 정서를 순화시켜 줄 수 있는 시를 고정적으로 게재하였다. 특히 일본이 항복한 8·15이후에는 미국에 관한 외신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고, 외신은 同盟通信을 수신하여 게재했다.

이문교가 사례로 제시한 제주신보의 스크랩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1997: 103—107).

△ 미군 捕虜 오키나와 토착

(샌프란시스코 1 일 發) 오키나와 來電- 일본의 포로수용소에서 해방된 미군포로의 제1 대는 1 일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엔라이트, 퍼시빌 - 厚木에서 마닐라로

(리스본 2 일 發)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우엔라이트, 퍼시빌 두 장군은 항복조인식이 끝나자마자 아즈키 비행장에서 마닐라로 갔다. 이는 야마시타 장군의 항복을 승인하기 위함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 美 戰時 統制를 대량철폐

(리스본 21 일 發) 와싱턴 來電- 평화의 극복과 동시에 전시생산국(戰時 生産局)은 21 일 일거에 210 건에 달하는 전시 통제의 철폐를 단행했다.(...이하 생략)

△ 재가나타(在加奈陀) 戰後의 동향

(리스본 26 일 發) 오츠크 來電- 캐나다 경찰 당국의 중간 조사보고에 의하면 현재 캐나다에 있는 재류 외국인의 일부는 전후에도 캐나다에 잔류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일본 국적의 노인들 중에서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캐나다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일본인들 중에는 귀환을 희망하는 비율이 낮고, 전쟁 반발후 브리티시 콜롬비아로부터 이동을 요구받아 다른 州에서 정착에 성공한 사람들은 현거주지에 반류를 원하고 있다.

백록가단(白鹿歌壇)에는 다음과 같은 詩들이 실렸다.

니천(尼川) 청령자
5 월의 추억 진실로 아쉬워하며
이별이 슬퍼 우는 濟州島
漢拏山을 떠나려는 날에는 비
하늘도 구름에 가려져 볼 수 없고
드넓은 바다는 거칠고 거칠다
새로운 생명을 지향하며 내가 설 것인가.

궁학구(宮鶴龜)
바다가 드러낸 모래사장을
아이들이 즐겁게 파도와 장난을 친다
시끄러운 아이들의 부르는 소리를 들으며
부목(浮木)을 지켜보다가 생각에 젖었다
황혼의 잔물결에 서면 추자도 석양에
불탔다 아득하니 희미하게 보인다.

그리고 누가 발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종간호로 추정되고 있는 1945년 9월 25일 <제주신보> 제호로 발행된 호외판에 게재된 미국 아놀드 군정장관의 성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政治團體, 市民 등의 警察力 行使를 禁함
아놀드 軍政長官 성명
미국육군 제24군사령부 군정부 발표(1945년 9월 14일)
조선(북위 38도 이남) 군정장관 A.V.아놀드 소장은 오늘 다음과 같
이 성명했다.

1. 연합국군 최고사령부 포고 제1호 제2조에 의해, 현재의 조선(북위 38도 이남)에서의 경찰기구는 그 기능을 계속한다.

2. 정치 단체, 귀환병단(歸還兵團) 또는 그 밖의 일반시민대가, 경찰력 및 그 기능을 행사하던지 또는 행사하고자 하는 것을 금한다.
3. 현재의 경찰기구는 종전의 일본정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군정장관인 본관 밑에 운영되는 그 조직의 실권은 본관이 부여한다. 또 그 조직은 헌병사령과 슈이크(シュイック 代將)准將에게 직속한다.
4. 경찰관은 본과에 의해 다음의 직권이 부여된다.
 - ① 무기의 휴대
 - ② 체포
 - ③ 분쟁의 진압
 - ④ 법규 및 질서의 유지
 - ⑤ 조선인 및 일본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현재의 경찰관은 종국적으로는 모두 조선인에 의해 조직되어야 할 것이며, 유능한 조선인이 채용되고 훈련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 상기 포고문 제1호 제2조는 다음과 같다.

정부, 공공단체 및 그 밖의 명예직원 및 고용인의 모두, 아울러 공익사업, 공중위생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사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고용원은 유급 또는 봉사 등의 구분을 불문하고, 중요한 직무에 종사할 것이며 별도의 명령이 없는 한 종래의 직무에 종사해야 하고 특히 그 모든 기록 및 재산보관에 임할 것.

(濟州新報, 號外, 1945년 9월 25일)

호외판에 보도된 내용을 제외하고, 앞에 기사 중에서는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전황 보도와 전 국민의 응전결의 등에 관한 기사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제주에 관한 기사도 없고, 모두가 전후 미국(미군포함)과 캐나다의 움직임에 관한 것들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기사가 제주신보에 실렸다고 한다면, 언제 실린 기사인지 그리고 외신은 同盟通信을 수신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례로 제시한 기사로 보면 그 출처를 확인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외

신기사의 경우, UPI, AP, 로이터 등에서 작성한 기사를 동맹통신을 받아서 보도한 경우, 반드시 (와싱턴 25일 UPI발 동맹통신)이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 기사는 단지 (샌프란시스코 1일 發), (리스본 21일 發) 와싱턴 來電, (리스본 26일 發) 오츠크 來電- 이라고만 명기되어있어 어떤 통신사가 제공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리스본 26일 發) 오츠크 來電이라는 기사의 경우도 이 기사가 보도된 날이 8월 26일 이후인지 아니면 9월 26일 이후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 기사가 9월 26일 이후에 보도된 것이라면, 제주신보의 중간호(호외판)가 발행된 후에 나온 것이 된다.

그리고 편집내용은 “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전황 보도와 전 국민의 응전결의 등에 관한 기사가 대부분이었으나 ...외신은 同盟通信을 수신하여 게재했다”라고 정확한 근거 없이 상상과 추정으로 기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결정적인 자료들이 나올 때 까지 가설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강용삼과 이용수(987쪽)에 따르면, 이 신문은 적의 공습이나 포격으로부터 도내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지부로 소개(疏開)를 권유 계도하는 사설과 기사를 자주 실었고, 사회면, 문화면 그리고 시단(詩壇)을 따로 두는 등 종합신문의 성격을 띠었으며 성전완수(聖戰完遂)를 다짐하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이 같은 주장만으로 당시 제주신보의 보도내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제주신보가 어떠한 내용을 주로 보도했는지를 유추해 보기 위해 당시 조선에서 가장 발행부수가 많았던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보도내용을 통해 편집체계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전시(戰時)언론의 보도내용은 군의 공식발표문을 토대로 작성되고 군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국내 모든 신문의 보도내용이 조선침략의 선봉에 서서 일체의 니팔수 역할을 수행했던 매일신보의 내용과 비슷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1945년 7월 5일부터 8월 5일까지 발간된 <매일신보> 가운데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신문 2개를 뽑아 거기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매일신보 1945년 7월 9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제목의 내용을 보면,¹⁸⁾ 1면에는 (사설) 소개(疏開)의 적극면, 증산과 방어에 총력/분투 조선발양 하라/국민이용대정신을 강화(3단3행)/ 보르네오방어격화/ 아군상륙 적에 맹공계속(주간전황)(3단2행), 항공공업등 관계자와 간담(3단 2행), 필승담/군민일체로 의용결기 적을 선제하자(3단 1행), 전국좌우하는 충승(오키나와)공군전/아군동태를 엄계연일공격속행 (2단2행), 문화/법의 인식(2회) 강병순, 십팔기 명석을 공격(1단1행), 청수시에도 오십기등 15개의 기사가 실렸고, 2면에는 의용대 결성의 대호령을 받고(3단 2행), 의용심으로 연신 중대사명완수에 전력, 의용대 결성의 총독유고에 관련하여/ 필승에 총력을 결집/ 황민전통을 발휘하라(3단3행), 견영에 배례/ 하전소위 유족에 조문(2단2행), 일억단결총결기(2단2행), 여성들도 전열에/ 받치자조국애의 적성(2단2행), 금년은 반드시 풍년(2단1행), 해군지원병/ 광주서

18) 매일신보 1945년 7월 9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 제목을 보면, (사설) 疏開의 積極面, 增産과 防禦에 總力/敢鬪(용감하게 싸움) 朝鮮發揚 하라/國民義勇隊情神을 強調(3단3행)/ 보르네오 攻防激化/ 我軍上陸 敵에 猛攻繼續(週間戰況)(3단2행), 航空工業等 關係者와 懇談(3단 2행), 필승담/軍民一體로 義勇蹶起(결기)敵를 先制하자(3단 1행), 戰局左右하는 沖繩敵空軍/我軍動態를 嚴戒連日攻擊續行(2단2행), 文化/法の 認識(2회) 강병순, 十八機 明石을 攻撃(1단1행), 清水市에도 五十機 등 15개 실렸고, 2면에는 義勇隊結成의 大號令을 받고(3단 2행), 義勇心으로 挺身 重大使命完遂에 全力, 義勇隊 結成의 總督諭告에 關聯하여/ 必勝에 總力을 結集/ 皇民傳統을 發揮하라(3단3행), 遣影(영)에 拜禮(배례)/ 河田少尉 遺族에 弔問(2단2행), 一億團結總蹶起(2단2행), 女性들도 戰列에/ 받치자組國愛의 赤誠(2단2행), 今年은 반드시 豊年(2단1행), 海軍志願兵/ 光州서 多數志願(1단 2행), 연재소설 願冠(41회, 朴泰遠作, 李承萬 畫) 등 21개의 기사가 실렸다.

다수지원(1단 2행), 연재소설 원관(41회, 박태원작, 이승만 화) 등 21개의 기사가 실렸다.

1945년 8월 4일자 신문 1면에는¹⁹⁾ 사설/거듭경전의 맹성을 촉함, 천황폐하 육대졸업생에 사알/ 공구, 일사 진충을 봉서(3단 2행), 보르네오/삼투기도의 적진을/야습, 육공으로 교난(3단2행), 충승 이적함을 격침/중소도시를 소이탄공격(3단2행), 적기 행동권을 확대/충승기지에서 남선연습(3단2행), 근로통률을 확립/생산책임자에 표창(2단2행), 적칠기 격추과/구주지구의 요격 진과(2단2행), 건설수송을 완수/보과군무국장 방송(2단2행), 국민근로의 완전전력화/후생성동원 0장 승격을 결정(2단2행), (문화)문단고백 2회 등 21개의 기사가 실렸고, 2면에는 팔일·조서 봉독식(2단3행), 의사들을 징용배치/ 일반, 학동 등 소개자의 보전에 만전(3단2행), 도열병, 충해방지/조기 발견 구제에 총력을(2단2행), 미곡증산에 일익/평남대 관개공사준공(2단2행), (○○○고백)무역위한 동양침공/ 살아갈 생각으로 전쟁에 나왔소(3단2행), 농민의 증산의욕을 앙양(2단2행), 연백지방새우 풍년(1단2행), 의료료 적정히 하라/부당○가취득하면 ○○방침(2단2

19) 1945년 8월 4일자 신문 1면에는 사설/거듭京電의 猛省을 促함, 天皇陛下 陸大卒業生에 賜謁/ 恐懼, 一死 盡忠을 奉誓(3단 2행), 보르네오/ 滲透企圖의 敵陣을/夜襲, 肉攻으로 攪亂(3단2행), 沖繩 二敵艦을 擊沈/ 中小都市를 燒夷彈攻撃(3단2행), 敵機 行動圈을 擴大/沖繩基地에서 南鮮連襲(3단2행), 勤勞統 率을 確立/生産責任者에 表彰(2단2행), 敵七機 擊墜破(격추과) /九州地區의 邀擊 戰果(2단2행), 建設輸送을 完遂/保科 軍務局長 放送(2단2행), 國民勤勞의 完全戰力化/厚生省動員 0長 昇格을 決定(2단2행), (문화)文壇告白 2회 등 21개 기사가 실렸고, 2면에는 八日· 詔書 奉讀式(2단3행), 醫師들을 徵用配置/ 一般, 學童 等 疏開者의 保健에 萬全(3단2행), 稻熱病, 虫害防止/早期發見 驅除에 總力을(2단2행), 米穀增産에 一翼/平南大 灌溉工事竣工(2단2행), (○○○고백)貿易爲한 東洋侵攻/ 살아갈 생각으로 戰爭에 나왔소(3단2행) 農民의 增産意慾을 昂揚(앙양)(2단2행), 延白地方새우 豊年(1단2행), 醫療料 適正히 하라/不當○價取得하면 ○○방침(2단2행), 연재소설 元冠(65회) 등 18개 실렸다.

행), 연재소설 원관(65회) 등 18개의 기사가 실렸다.

2일치의 보도기사의 제목을 보면, 1면은 오키나와(沖繩)와 보르네오 등의 전황소식과 전 국민의 결사항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2면은 사회분야 기사가 2-3건 그리고 문화관련 기사가 1개씩 고정적으로 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면의 경우, 현재로 올수록 사회관련 기사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황소식은 모두 당시 일본의 정부기구나 다름없던 동맹통신을 수신하여 게재한 것이었다. 이러한 보도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제주신보의 보도내용도 매일신보처럼 동맹통신에서 보내온 내용이 주를 이루고, 지역에서 발생한 2-3건 정도 기사(전쟁지지 및 동참하는 내용 등)로 채워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제가 신문기사를 철저히 통제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당시 신문기사를 어떻게 통제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는 하타나카 시게오(畑中繁雄)씨가 쓴 <일본 매스컴의 언론탄압 조사>에 실린 기록을 들 수 있다. 이 기록은 ‘일반 여론의 지도방침’으로 ①이번 대미영전은 제국의 생존과 권위의 확보를 위해 일어난 전쟁으로 강조할 것 ②적국의 이기적 세계 제패 야망이 이번 전쟁이 일어난 진정한 원인이라는 논리를 세울 것 ③세계 신질서는 팔굉일우(八紘一宇)²⁰⁾의 이상에 세워져 만방에 알리는 목적임을 강조할 것 등으로 되어 있다(김주언, 73쪽에서 재인용).

다음은 구체적인 지도방침의 일부이다.

△ 구체적 지도방침

20) 팔굉일우(八紘一宇)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의 핵심 사상으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접어든 일본 제국이 세계 정복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구호로, “전 세계가 하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만방이 모두 천황의 지배 하에 있다”는 이념이다. 이것은 황국사관의 근본사상이다(출처: 위키백과).

- ① 우리나라에 전황이 호전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우세한 입장에 있음을 크게 강조할 것
- ② 우리 경제력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을 강화하는 논지를 펼 것. 특히 남방 민족의 신뢰감을 높이는 배려를 할 것
- ③ 적국과의 정치·경제적 비교는 적국의 군사적 약점을 폭로하여 이를 선전함으로써 적국의 자신감을 약화시키고 제3국의 신뢰를 잃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집중할 것
- ④ 국민 가운데 미국과 영국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심어줄 것. 동시에 미국과 영국에의 의존심을 철저하게 불식시키도록 할 것
- ⑤ 장기전에 대한 각오를 심어줄 것

△ 경계할 사항

- ① 전쟁에 대한 진의를 곡해하고 제국의 공명한 태도를 비방하는 언설
- ② 개전경위를 곡해하여 정부와 통수부의 조치를 비방하는 언설
- ③ 개전에 관해 독일과 이탈리아의 도움을 기대한다는 식의 논조
- ④ 정부와 군부 사이에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었다는 식의 논조
- ⑤ 국민은 정부의 지시에 관해 복종하지 않고 국론도 통일되지 않는 등의 논조
- ⑥ 중국과 만주 그밖에 지역과의 관계에서 불안이나 동요가 있다는 식의 논조
- ⑦ 국민 가운데 반전이나 염전의 기운을 조장시킬 수 있는 논조에 대해서는 특히 주위를 필요로 함
- ⑧ 반군사상을 조장시킬 경향이 있는 논조
- ⑨ 화평기운을 기대하게 하고 국민의 사기를 저상시키는 논조 (대미영 타협, 전쟁중지 요청을 시사하는 논조는 당국이 특별히 경계하는 것으로서 엄중 주의를 요함)
- ⑩ 총후치안을 교란시키는 논조

이 지침에 어긋나는 기사는 무조건 삭제시켜 언론보도를 통일시켰다. 이 기록에서 보듯이 전시 언론의 역할은 정부의 전시방침과 전

황 소식을 빠르고 유리하게 보도하여, 군과 국민의 사기를 진작시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당시 <제주신보>의 발간을 주도했던 특파원들의 주요 업무는大本營 등에서 보내온 각종 통신내용을 선별·정리하여 전쟁보도 방식에 따라 보도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전쟁보도의 간단한 공식은 군부대의 공보담당 대변인의 성명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다. 특히 군의 사기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아군의 손실은 적게, 적의 손실과 피해는 몇 십 배 부풀려서 확대 발표하는 것이다. 그 기사를 읽는 독자들은 그 내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는 없다. 물리적인 한계로 인해 기사 내용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5. 발행주기, 발행부수 그리고 주요 배부처(배포 대상)는 어디인가?

1939년 말 무렵 우리나라에는 27개 신문이 발간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7개는 일본어신문이고 7개는 국문과 일문 혼용신문이며, 나머지 3개는 국문신문(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신보)이었다(정진석, 1978: 254-267). 3개의 국문신문 가운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1940년 8월 10일 총독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었고, 해방이후 이 두 신문이 복간되기 전까지는 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만 발간되고 있었다. 일제말기 총독부의 한국어 말살정책으로 매일신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일본어 또는 국문과 일문혼용으로 발간되고 있었다. 제주신보는 일본어로 발행되었다. 당시 약 23만의 제주도 주민 가운데 일본어를 해독할 수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설사 제주도에서 일본어 신문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당시의 육상교통수단과 도로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배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문교는 이 신문의 간별은 일간 형식이었으나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이문교, 1997: 101)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 자료는 현재까지도 없다. 이러한 주장과 달리 이 신문의 발행주기는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 창간되던 시기는 1940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전쟁물자난으로 매일신보를 비롯한 전국의 각 신문사에 용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감면 발행에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일신보의 경우 1941년 7월 11일부터 하루 10면을 발행해 오던 것에서 2면을 줄여 8면으로 감축했고, 발행면수를 지속적으로 감면해 1944년 11월 1일부터 주14면 매일 2면을 발행하였다. 1941년 이후 일제의 패망까지 매일신보의 지면감축 추이는 다음과 같다(정진석, 2008: 268).

1942. 4. 11. 석간 2면, 조간 4면으로 하루 6면 발행.

1943. 8. 30. 월요일 조간은 2면 감면 발행.

1943. 11. 1. 조선신문회협정에 의거 조석간통합한 단간제 종합판 4면 발행.

1944. 3. 10. 용지난으로 석간발행 중지.

1944. 9. 9. 주 18면제, 수·토 4면, 기타는 2면 발행.

이와 같이 신문발간 용지난과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수단이 두절되었던 시기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보면, 제주도에서 타블로이드 2면짜리 신문을 일간 또는 격일간으로 발간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신문용지를 제때에 공급하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도민들을 전쟁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 긴급히 보도할 시사성이 있는 뉴스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발행부수와

배포범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없다.

이문교의 연구에 따르면, 부수는 매호 2천 부 내지 2천 5백 부 정도 발행되어²¹⁾ 각 군부대와 관공서 등 제주도 일원에 무료로 배부되었으며, 배부는 이미 보급망이 조직되어 있던 경성일보와 매일신문의 지국과 보급소를 이용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한글과 한문으로 된 2개 언어 신문을 해독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점과 신문을 이웃과 돌려가면서 읽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하루에 2천 5백부 정도의 신문을 발행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료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독자층은 일본군뿐만 아니라 관리, 각종 단체 요원, 상공인 등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일본어를 아는 계층으로 한정되었다. 군부대 외에 이 신문의 주요 배부처가 되었던 당시의 기관은 제주도청을 비롯하여 13개 읍면,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검사분국, 제주경찰서, 16개 경찰관주재소, 전라남도립 제주의원, 제주축후소, 제주우체국, 9개 우편소, 제주무선전신국, 4개 전매지국판매소, 부산세관제주출장소, 21개 학교, 학교조합, 삼림보호구 등 90여개 기관 단체 등이었다(이문교, 1997: 102).

이 신문의 주 독자층을 보면 일본군인을 제외하고 대개 관공서의 관리, 각종 단체 요원, 상공인들이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이들 부류는 그 사회의 주요 여론을 대변하는 여론주도층에 속한다. 때문에 이들은 신문의 보도내용을 주위로 확산시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21) 발행부수는 <제주언론사>의 저자인 이문교씨가 직접 실험을 통해 산출해낸 것이다. 발행부수는 매호 활판인쇄기로 5시간 내지 6시간 인쇄한다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4백부에서 4백 50부가 인쇄되었다. 따라서 발행부수는 최저 2천부에서 최고 2천 7백부로 산출되었다.

6. 제주신보의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은 언제인가?

신문의 창간일은 신문이 태어난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기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신문의 창간일 정도는 보통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신문의 발간업무를 돕기 위해, 보도요원으로 채용되었던 제주지역 6명의 수습기자들마저 이 신문의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 신문의 출현을 맨 처음 기록한 <대하실록 제주백년>은 말할 것도 없고, <제주신문50년사>와 <제주언론사>마저도 이 신문의 창간시기를 7월 또는 7월 초순경이라 추측할 뿐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발생한 것일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어쩌면 이 신문은 실제로는 정기적으로 발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둘째, 5~6명 수습기자들이 자신들이 발간하는 신문의 창간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채용되기 전에 이미 창간호가 발행되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이들의 주장과 달리, 신문발행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수 있다. 셋째, 종간일과 관련, <대하실록 제주백년>(1984: 985-990)은 1945년 8월 15일 제주신보의 편집국 모습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날 아침(8월 15일) 동맹통신은 드디어 「금일정오 중대방송 있음」이라는 10자의 간단한 예고 사항을 전해왔다. 정오 정각이 되자 일황유인(日皇裕仁)의 항복방송이 마침내 전파를 타고 흘러나왔다. 발간한지 두 달도 안 되는 제주신보의 편집국 전원이 신문제작을 중지한 채 이 충격적인 사실에 의아해 하면서 <중대방송>을 알리는 벽보를 쓰느라 편집국이 발각 뒤집혔다. 울 것이 왔다는 듯 일본 특파원들도 어두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벽보쓰기에 바빴고 (수습)기자들은 또 그들대로 엄청난 역사의 전환점에서 말들을 잃고 분주히 손을 움직였다> <...중략>

일본의 항복을 알리는 수백 매의 벽보를 제주읍 거리거리에 붙이고 나서 운주당(雲州堂)에서 조출한 주연을 열어 떠나야 할 일본 특파원들과 같이 어울리며 밤새도록 통음하였다. <...중략> 일본 특파원들은 쇼와 일황이 항복 선언을 한 그 이튿날 8월 16일 제주비행장 비밀지하창고에 숨겨두었던 4대의 일본특공기에 분승하여 조용히 제주를 떠났다.

이 기록처럼 일본신문의 특파원들이 제주를 떠났다고 한다면, 당시 수습기자들도 조국의 해방소식을 듣자마자, 여러 가지 사유로 신문사를 당장 그만두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 후에 신문이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신문이 발행되었는지는 모를 수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전황과 국내외의 동향을 자체 통신과 무선을 통해 대부분의 내용을 입수하고 있는 패전국 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주민을 위해 신문을 발행해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 보아진다.

7. 제주사회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매스 미디어의 기능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전체로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현재의 사회조사수단으로서 는 다 포착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고 미묘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약 62년 전 라이트 밀즈(C. Wright Mills, 1956/1979: 414)가 한 말이다. 미디어의 기능이 광범위한 것처럼 미디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는 의미다. 때문에 제주 신보가 제주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딱 꼬집어 설명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다. 미디어의 기술, 조직의 구성원, 보도내용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는 신문제작기술의 전수(교육)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 사령부 또는 총독부 주도로 발간된 제주 신보가 군인의 사기 진작이라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창간된 진중신

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언론매체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 신문을 함께 만들었던 특파원들은 그곳에서 신문발간업무를 도왔던 제주출신의 수습기자들에게 신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신문제작기술 습득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수습기자들이 제주신보 제작과정에서 보조원으로 일한 기간은 넓게 잡아 약 2개월밖에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배우고 습득한 신문제작기술은 해방 후 진정한 의미에서 제주지방신문의 효시인 제주민보를 탄생시키는데 커다란 힘과 용기가 되었을 것이다.

수습기자 출신 가운데 김용수는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로 참여하여 정경부장,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제주신문 주필, 제남신문 사장을 역임했다. 이기형은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 의회보(議會報) 편집국장, 제남신문 편집위원, 제주문화방송 편성부장, 보도부장, 제주신문 논설위원, 한라일보 논설위원, 이사로 활동했다. 고평태는 제주신보(제주민보) 창간 기자, 제주신문 정경부장, 제남신문 정경부장을 거치며 언론 활동을 했다. 그러나 문중옥은 1년여 동안 사진 기자로 활동하다 교육계로 전직했고, 박태전은 해방 후 언론 활동을 하지 않았다(이문교, 1997: 110).

둘째는 7월 초순경에 창간된 제주신보는 제주지역에서 발간되었기 때문에 해상교통수단이 두절되기 전 제주지역에 배포되던 각종 전시(戰時) 신문들에 비해 제주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사건에 관한 뉴스를 더 많이 보도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로 인한 영향은 수입된 신문들에 비해 훨씬 컸을 것이다.

사회현실과 관련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자신의 직접 경험에 의해서 체득된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우리들 관념의 대부분은 미디어로부터 얻어진 것들이다. 우리는 자신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해서조차, 그 사실을 신문에서 읽든가 라디오로 듣기까지는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Walter Lippmann, 1920/2012: 98).

이처럼 미디어 보도가 우리에게 생각의 근원인 정보를 제공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까지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한다면, 제주신보는 어떤 의미에서건 제주도민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주도민들에게 전쟁에 동참하고 지지하도록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는 1945년 4월부터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수단이 두절되기 전까지 제주도에는 매일신보(每日新報), 경성일보(京城日報), 오사카매일(大阪每日), 오사카아사히(大阪朝日),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 전남신보(全南新報), 마이니치 신문(每日新聞), 아사히 신문(朝日新聞) 등이 배포되고 있었다.

당시 육지부에서 발간된 이질적이고 낯선 명칭의 신문만 보던 제주도민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친밀한 <제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신문이 탄생했다는 그 자체가 아마 제주사회에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제주도내 각 관공서와 상가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제주도민들에게 이 신문이 무료로 배부되고 있었다. 제주신보는 이 신문을 접한 독자들에게 제주도에서도 제주라는 이름이 들어간 신문을 발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V. 글을 맺으면서

이상으로 일제 패망 직전에 제주도에서 급하게 발간되었던 일본어 신문인 제주신보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신문사(新聞史)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자료인 신문이 현재 호외판을 제외하고 한 장(한호)

도 남아있지 않은 관계로 이 신문의 존재를 기록한 3권의 책 속에 나온 내용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어떤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고, 부족한 부분은 타 문헌을 통해 보충하였다.

앞서 제시한 연구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행주체와 관련 국내에서 접근 가능한 각종 문헌을 조사한 결과, 이 신문이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의 주도 아래 혹은 지시로 창간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나 사료를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주신보의 발행목적 및 취지, 창간배경, 이 신문의 제작자, 배포대상 등을 유기적으로 종합해 보면, 1945년 5월에 들어서면서 제주와 목포, 부산 그리고 일본의 대판 등을 연결하는 해상 교통이 두절되고, 그로 인해 육지부에서 발간되어 제주도 내의 각종 행정관청과 여론 주도층에 배포되던 전시(戰時)신문들의 보급이 중단되자, 조선통치를 책임지고 있는 총독부와 군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를 대신해 제주도민들에게 전시상황을 전하고 그들의 전쟁참여를 독려하고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무공작용 신문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창간된 신문이 바로 제주신보이고, 이 신문의 창간을 위해 제58군 사령부가 적극 후원 협조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선행 연구자들은 공식적인 자료도 없이 이 신문이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에 의해 발행되었다는 추측 하나만으로 진중신문이라 명명하고 있었다. 그 이상의 근거는 찾을 수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신문이 진중신문이 되려면 일단 신문제작 주체가 군인이어야 하고, 주요 배포대상도 군인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제주신보는 진중신문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신문은 취재를 위해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일본신문의 특파원들이

중심이 되어 발간되고 도내일원에 무료배부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문이 진중신문이었다면, 타 진중신문들처럼 군부대 명칭(별칭)을 따서 이름을 붙이거나 아니면 ‘진중신문’ 이라고 명명하지, 일반 지방지 제호(광주일보, 전남신보, 부산신문 등)처럼 제주신보라고 명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제주신보는 제58군 사령부에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발간했던 진중신문이 아니라,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쟁참여 및 협조를 독려하기 위한 선무선동 심리전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총독부에서 임시로 발간했던 기관지로 불러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신보의 정확한 창간일과 종간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자들은 현재 제주신보 제호로 발간된 신문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제주신보의 호외판(1945년 9월 25일)을 종간호로 추정하고 있다. 호외(號外)는 특별한 일(사건)이 있을 때에 본지 발행과 달리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를 말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종간호와 호외판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호외판의 경우, 제호만 제주신보라고 되어있지 제호 밑에 있는 판권란(版權欄)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이 호외판을 누가 발행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막연히 일본군 제58군 사령부에서 발행했을 것이라 추정할 뿐이다.

또한 일본어濟州新報의 존재에 대해 가장 최초로 간략히 언급한 이영복의 회고록(나의 재직시절)에 따르면, “창간호 발행일자가 애매하고, 일본군 당국은 칠성로의 四元인쇄소를 접수하여 손바닥만한濟州新報란 신문을 발행하고 있었다. 그 내용은 조작된 전황과 주둔군의 포고문과 경고문 등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넷째, 자료의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선행연구는 이 신문의 발행주기를 일간 형식이었으나 거의 격일간으로 발행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달리 당시의 제주도 상황과 신문 발간 용지난을 고려할 때 이 신문은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발행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신문이 창간되던 시기는 1940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전쟁물자난으로 매일신보를 비롯한 전국 각 신문사에 용지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면 발행에 들어가던 시기였고, 제주도의 경우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교통수단의 두절로 신문발간을 위한 용지공급이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한 좀 더 정확한 해답을 얻기 위해 제주주재 일본영사관에 일본군 58군 사령부 혹은 조선총독부에서 일본어신문 제주신보를 발간했다는 기록이 혹시 일본 지역 도서관 등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처럼 이 신문에 대한 공식자료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이 신문이 조선총독부의 지시로 특과원에 의해 부정기적으로 임시 발간되었던 기관지의 일종이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덧붙인다면, 이 신문이 제58군 사령부의 주도로 발간되었다는 주장을 누가 먼저 했는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기록상으로 보아서 <대하실록 제주백년> 저자가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3권의 저술(大河實錄 濟州百年, 제주신문50년사, 제주언론사)에 따르면, 보도요원(수습기자) 모집 주체, 채용 시기 및 인원, 시험장소, 발행주기, 배부대상, 신문의 판형, 경성일보의 기모도(木本) 주필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기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 강순원, 2006, 「태평양전쟁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군사시설」,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08, 「태평양 전쟁과 제주도 내 일본군 군사유적의 실태」, 조성운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159—233.
- 강용삼·이경수 편저, 1984, 『大河實錄 濟州百年』, 태광인쇄사.
- 김규환, 1978, 『일제의 대한언론정책』, 이우출판사.
- 김봉옥, 2013, 『제주통사』, 제주발전연구원.
- 김주연, 2008, 『한국의 언론통제』, 리북.
- 박찬식, 2005, 「제6장 근현대사」, 『濟州市 50年史』, 제주시, 358~388.
- _____, 2006, 「제주도내 오름과 일본군사 유적」, 『한라산 역사·유적』, 제주도 한라산 생태문화연구소.
- 신주백, 2000, 「1910년대 일제의 조선통치와 조선주둔 일본군-‘조선군’과 헌병경찰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 이문교, 1997, 『제주언론사』, 나남출판.
- 이충훈 번역, 2012, 『여론』, 가치.
- 임근수, 1984, 『언론과 역사』, 정음사.
- 임종국, 1989, 『日本軍의 朝鮮侵略史 II』, 일월서각.
- 진덕규 번역, 1979, 『과워엘리트』, 한길사.
- 정진석, 1983, 『한국언론사연구』, 일조각.
- 정진석, 2007, 『극비-조선총독부의 언론검열과 탄압』, 커뮤니케이션북스.
-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해수다 II』, 한울.
- 제주도, 1982, 『濟州道誌 上』.
- 제주도동굴연구소, 2005, 『남제주군서부지역 일본군 진지동굴 전쟁유적 조사보고서』.
- 제주신문사, 1995, 『제주신문50년사』.

- 조성윤, 2008, 「일제말기 제주도 주둔 일본군과 전적지」,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27—157.
- _____, 2008,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최 준, 1976, 『한국신문사논고』, 일조각.
- 츠카사키 마사유키, 2008, 「제주도에서 일본군의 본토결전 준비—제주도와 거대군사 지하시설」, 조성윤 엮음, 『일제 말기 제주도의 일본군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57~157.
- 한영학, 2011, 「광무신문지법과 일본 신문지법의 비교」, 『韓國言論學報』 제55권 1호, 337—360.
- 宮田節子 편, 1989, 『朝鮮軍 概要史』, 不二出版.
- 毎日新報, 1945년 3월 12일자/ 1945년 5월 26일자/ 1945년 6월 14일자.
- 제주의 소리, 「김종민의 ‘다시 쓰는 4.3’/(3) 4.3사건 전개과정 요약 1—일제강점기의 제주도」, 2017년 03월 21일자.

Abstract

A study on some questions about JejuShinbo published
in Japanese

Ko, Young-Chur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a few questions about JejuShinbo insisted by previous studies. First, there is no official document to prove that the JejuShinbo was published by the Japanese military. Given the information on the JejuShinbo, it is assumed that because people could not get newspapers due to the disconnection of sea transportation during the war, JejuShinbo was published to provide war information to the Jeju residents and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in the war. In other words, it was a temporary newspaper published by Japanese journalists under the cooperation of the Japanese military. Second, there is no evidence that JejuShinbo was a military newspaper which was published by the military during the war. Third, the recruitment body, the number of reporters, the place of test, the date of creation and expiration, the period of publication, the target of distribution, and the circulation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evious research. This is because historical evidence was uncertain or the contents were described without evidence. Fourth, unlike the argument that JejuShinbo

* Dept. Journalism & Public Relations, Jeju National University

일어신문 『濟州新報』 관련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小考

was published every two days insisted by the previous studies, it was presumed that it was published irregularly when it should be published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paper supply at that time.

Keywords : JejuShinbo, newspaper producer, publication purpose, military newspaper, circulation

교신 : 고영철 63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언론홍보학과
(E-mail : ycko@jejunu.ac.kr)

논문투고일 : 2019. 01. 15

심사완료일 : 2019. 01. 28

게재확정일 : 2019. 01. 29